

도시의 공간 예술
겹의 겹의 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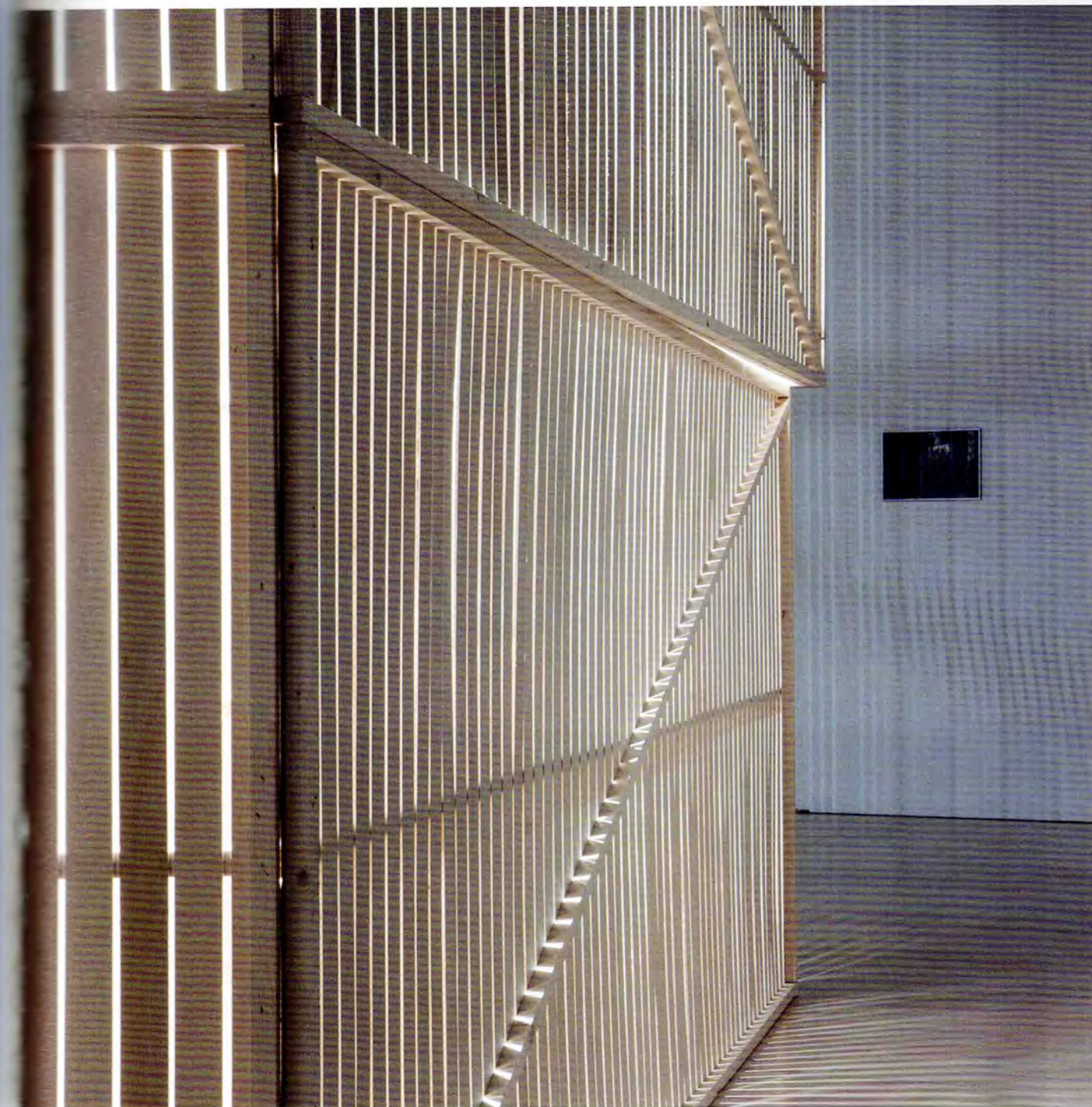
CITY AS LAYERS
GAP AS SPACE
TEXTURE AS ART

홍수현 Soo Hong

1983 -

홍수현은 공간과 빛을 매개로 관람자의 지각과 경험을 탐구하며, 장소 특정적 설치 작업을 이어왔다. 각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구조물에 다양한 방식의 빛을 결합해 시공간의 경계를 확장시키고, 관람자의 움직임과 감각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. 〈In the Box without Mystery〉는 비틀린 두 개의 마름모꼴 박스로 구성된 구조물로, 외벽 판재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내부를 암시하지만 진입은 차단된다. 관람자는 외곽을 따라 이동하며 틈새로 내부를 가늠하게 되고, 열린 듯 닫힌 구조 속에서 '안과 밖'의 경계를 감각적으로 인식하게 된다. 작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장소와 작품, 관람자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확장한다.

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 후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서 마이스터과정을 수료했다. 《조각난 풍경》(성북예술창작터, 2022), 《APMAP》(아모레퍼시픽미술관, 2022), 《passing across》(아트센터 화이트블럭, 2023), 《View from Outside》(온수공간, 2024)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. Enschede 예술가 레지던스(2014), 고양시 예술창작 공간 해움(2022-2023), 앙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(2025)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했으며, 제10회 필룩스 라이트아트 공모전(2021)에서 수상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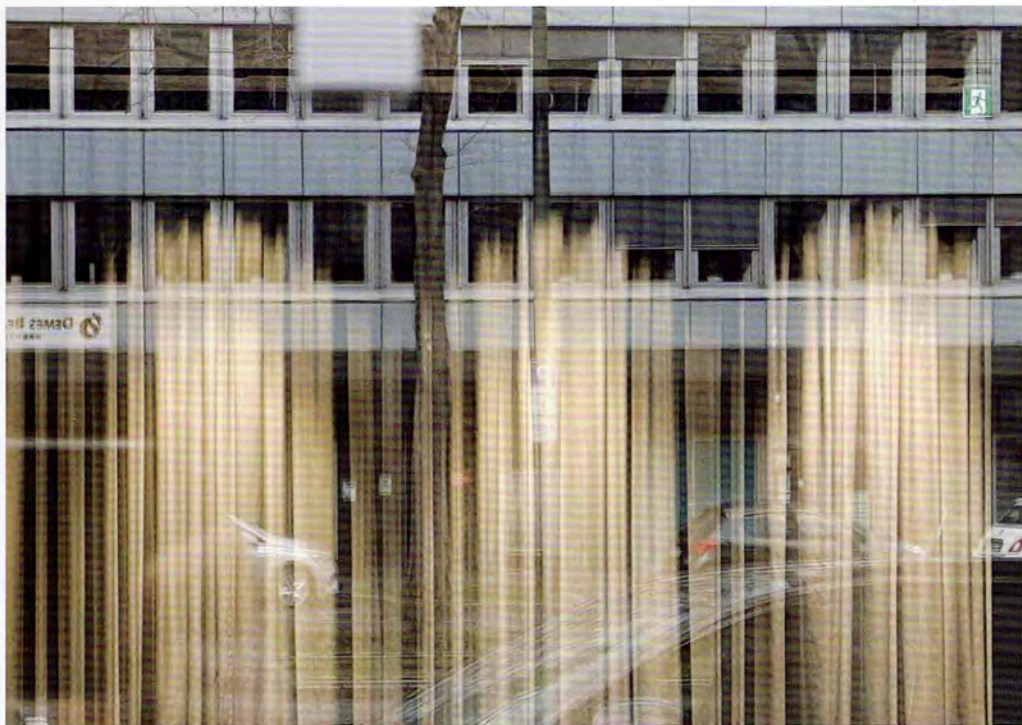


In the Box without Mystery

2025, 각재, 판재, LED투광기, 컨트롤러, 전선, 300×520×375cm

Reflektion II

2023, 잉크젯 프린트, 29.7×42cm



Reflektion

2021, 디아섹, 29.7×42cm



at Night 2

2024, 디아섹, 29.7×42cm



Reflexion III

2023, 잉크젯 프린트, 29.7×42cm



curtain

2023, 잉크젯 프린트, 29.7×42cm

